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이기영 · 안수미

제 1 장 서 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이를 잘 활용하여 부를 증식하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동시에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필수적인 각종 정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널리 보급되는 것은 개별 가계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계의 재정을 보호하고 나아가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 누가 가계의 재산을 증식시킬 것인가, 많은 대중매체들이 가계의 '주부'가 재테크의 주체이며,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의 현모양처의 기능에 재테크능력까지 부가적으로 갖춘 '新현모양처'(중앙일보, 1997년 1월 15일자)를 바람직한 현대적 부인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실제적인 화폐소득력(경제력)의 소유가 대인관계에서 힘의 우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인이 가정의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부인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의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부관계에서 힘을 소유하게 하고 곧 부인의 가정 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강요되는 현대적인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부인들에게 또다른 과중한 역할을 부담시킬 뿐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인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자원을 자유재량으로 이용하고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리가 과연 부인에게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가부장제 규범의 영향으로 가계재산관리권과 가계수입 및 지출관리권이 가장에게 속해있고 주부는 실제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좁은 의미의 소비권만이 부여된 가계관리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남녀간의 엄격한 역할구분과 불평등한 권력 분배가 정당화되었던 전통사회에 비해 산업화 이후의 사회구조적 변화는 부부간의 역할 및

권위관계에 변화를 가져와 부인의 권한이 전통사회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의 경제활동 중 일상적이고 적은 금액의 소비행동은 주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반면 소비액이 크고 전체 가정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구입 같은 결정에서는 가구주의 결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류영희, 1981; 송인숙, 1981; 김윤경, 198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2)으로 보아 가족 내에서의 부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나 도구적 권한(implementation power)¹⁾에 그친다(조혜정, 1981;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2)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 경제적 생활 중에서도 자산관리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부부중 누가 담당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부부관계의 평등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권한의 행사와 이양이라는 권한행사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관리의 '과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역할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산관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가정관리는 가족의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가족자원관리의 대부분은 재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활동은 경제자원의 관리에 집중된다(Deacon & Firebaugh, 1988). 가계의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는 가계의 모든 자원의 획득과 사용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만 특히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결정을 통해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생활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정관리 중에서도 '자산'을 대상으로 한 관리행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자산관리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경제적 행동으로서 자산증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계저축과 투자행동으로 정의하고, 자산관리는 정보수집, 계획,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자산관리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정보수집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

1) Safilios-Rothschild(1976)은 권력을 도구적 권한(implementation power)과 총괄적 권한(orchestration power)으로 나누었는데, 총괄적 권한이란 가족 전부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나 가족의 생활스타일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권한으로 매우 중요하고 드물게 내려지는 결정권을 말하며, 도구적 권한이란 중요하지 않으면서 자주 내려져야 하는 시간소모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으로 총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의해 위임된 영역에 대한 한계적인 결정권을 말한다.

수적인 과정으로, 자산증식을 위한 저축과 투자의 대상이 되는 각종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에 대한 정보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계획은 관리과정의 중심적 단계로 저축 및 투자의 목표를 세우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특정한 형태의 대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실행은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자산관리과정에서의 실행은 저축과 투자로 나타나며, 계획 이후의 수행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행과 더불어 목표달성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계획을 조정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제 2 절 부부의 역할구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인 일방적인 권위주의와 명백한 남녀간의 역할구분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가계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가계재산 관리권과 가계수입 및 지출관리권은 가장에게 속해있고 주부에게는 실제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좁은 의미의 소비권만이 부여되었었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관계는 전통적으로 남자기배의 가부장적인 유형에서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으며 역할분화의 정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념과 행동의 측면에서 동시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부장적 부부관계에서 근대적인 평등한 부부관계에 이르는 다양한 부부관계가 동시에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역할구조는 크게 부부자율형 (autonomic), 남편지배형 (husband dominant), 부인지배형 (wife dominant), 부부일치형 (syncratic)으로 유형화되고 있다.

부부의 역할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부부의 역할구조를 해석하는 관점에 의해 크게는 평등성에 기초한 해석과 합리성에 기초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자원이론, 규범적 자원이론, 교환이론 등 사회학 이론은 주로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기초하여 역할구조를 설명하는 이론들이며, 심리학적 접근과 경영학적 접근방법은 역할구조를 역할분담의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한다.

역할구조의 평등성은 역할의 공유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부부간에 평등주의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서 나타나며, 합리성은 역할을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현대생활이 복잡하게 되어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역할구조를 연구하든지 가족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은 성에 의거하여 규정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융통성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두 입장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제 3 절 자산관리 역할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결정은 부부가 함께 내리고 부부 중 1사람이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정보수집에서 점차적으로 남편이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추세이며 최종결정은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나, 수행단계에서는 부인이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중 일상적이고 적은 금액의 소비행동은 주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반면 소비액이 크고 전체 가정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구입같은 결정에서는 가구주의 결정률이 높으며, 가정의 경제활동 중 투자, 저축, 큰돈의 거래를 포함하는 자산관리활동에서는 남편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부인의 역할수행은 의사결정보다 실행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 자산관리과정 각 단계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는 어떠한가?

1-1) 자산관리과정 각 단계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부부의 역할구조는 자산관리과정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1-2) 자산관리과정 각 단계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2. 자산관리과정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부부의 자산관리역할구조는 어떠한가?

2-1) 부부의 자산관리역할구조 유형중 지배적인 유형은 무엇인가?

2-2) 자산관리역할구조의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제 2 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과 취업여부를 고려하여 의도적인 층화표집을 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370부가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에는 SPS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제 1 절 자산관리과정 각 단계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

자산관리과정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가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모든 단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관리과정의 단계에 있어 계획, 정보수집, 실행의 순으로 부인의 역할참여가 높아지며, 남편은 계획단계에는 많이 참여하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에는 덜 참여한다고 보인다.

〈표 1〉 자산관리과정의 단계에 따른 역할구조의 경향

빈도(%)

	남편주도	부부공동	부인주도	F 검증결과	
정보수집	96 (25.9)	129 (34.9)	145 (39.2)	F=2647.4***	
계 획	57 (15.4)	237 (64.1)	76 (20.5)	F=4351.7***	F=1840.1***
실 행	46 (12.4)	157 (42.4)	167 (45.1)	F=4262.9***	

***p<.001

제 2 절 자산관리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역할구조별 특성

역할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산관리과정의 단계별 역할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변수들이 단계별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부인의 연령의 경우 정보수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보다는 부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계획과 실행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수집과

계획 또는 실행간에 부인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공동은 어느 단계에서나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연령차이는 실행단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 단계에서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의 차이가 많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보다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연령이 부인보다 높을수록 자산관리에 있어서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통적인 관리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편의 직업지위는 직업지위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남편의 직업지위가 전문직인 경우에는 실행단계에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부인주도적인 역할구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에 비해 정보수집단계에서 남편주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계획단계와 실행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역할을 공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서비스·생산직의 경우는 정보수집과 실행에서 부인주도적인 역할구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무직의 경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정보수집에서는 부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계획은 부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실행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은 정보수집과 계획단계에서 남편주도와 부부공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행단계에서도 남편주도의 역할구조, 부인주도, 부부공동의 순으로 남편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기보다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 및 채권과 부동산의 보유정도는 정보수집과 계획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 단계에서 남편주도의 경우에 가장 많고 부부공동의 경우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관리시 일반경제에 대한 지식을 많이 요구하며 손익의 격차가 큰 주식과, 그 규모가 총자산규모와 맞먹을 정도로 크고 가장(家長)의 소유가 명확한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그 규모가 커질수록 남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산관리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화폐자산과 계 및 사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식 및 채권과 부동산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주목할 만하다. 즉 화폐자산과 계 및 사채는 부인주도의 역할구조일 때 그 보유액수가 큰 경향을 보여, 수익성은 적으나 안전하고 투자보다는 저축의 성격이 강한 자산은 부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 중 부부역할태도는 모든 단계에서 부부공동과 남편주도의 역할구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부인의 부부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기보다는 모든 단계에서 남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전통적으로 남편이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자산관리지식은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단계에서 남편주도, 부부공동, 부인주도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역할구조에 유의한 영향을 못 미쳤던 것과 비교하여, 부인이 자산관리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3 절 자산관리역할구조의 유형과 특성

자산관리역할구조 유형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관리과정의 세 단계인 정보수집, 계획, 실행을 축으로 하여 역할수행의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중 비율이 높게 나타난 7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부부의 역할수행정도를 남편주도-부부공동-부인주도의 연속체(continuum)로 파악했을 때 가장 남편주도적인 역할구조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자산관리과정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 유형화 결과

빈도(%)

정보수집 계획 실행	남편주도			부부공동			부인주도		
	남편 주도	부부 공동	부인 주도	남편 주도	부부 공동	부인 주도	남편 주도	부부 공동	부인 주도
남편주도	<1> 26 (7.0%)	10	0	1	5	1	2	1	0
부부공동	14	<2> 40 (10.8%)	0	8	<3> 60 (16.2%)	2	0	<5> 29 (7.8%)	4
부인주도	1	4	1	2	<4> 39 (10.5%)	11	3	<6> 49 (13.2%)	<7> 57 (15.4%)

〈표 3〉 자산관리역할구조의 유형별 특성

		1	2	3	4	5	6	7	검증 결과
부인의 연령 (세)		42.85 a	37.10 bc	37.95 bc	35.79 c	39.79 abc	40.04 ab	40.21 ab	F=3.171**
부부의 연령차이(세)		3.73 a	2.50 ab	2.35 b	2.67 ab	3.28 ab	3.24 ab	2.75 ab	F=1.732
부인의 소득 (만원)		84.23 ab	109.50 a	81.17 ab	79.54 ab	112.41 a	54.49 b	79.82 ab	F=1.639
남편의 소득 (만원)		358.46 a	297.75 abc	222.50 cd	250.64 bcd	196.72 d	304.69 ab	270.35 abcd	F=2.844*
부부의 소득차이 (만원)		179.29 a	61.25 bc	98.46 abc	115.82 abc	29.74 c	130.48 ab	131.61 ab	F=2.249*
부동산 (만원)		41646.2 a	24930.0 bc	14991.7 c	19346.2 bc	17993.1 bc	21108.2 bc	30689.5 ab	F=3.681**
부부역할태도		29.46 c	34.30 ab	33.73 ab	36.77 a	34.62 ab	32.96 b	33.89 ab	F=2.894**
자산관리지식		2.85 b	4.55 a	4.27 a	4.59 a	3.76 ab	4.88 a	4.81 a	F=3.432**
남편의 직업지위 (빈도, %)	전문·경영· 기술직	12 (7.7)	18 (11.6)	24 (15.5)	24 (15.5)	10 (6.5)	30 (19.4)	37 (23.9)	* 2=53.049 ***
	사무직	4 (6.3)	16(25.0)	18 (28.1)	11 (17.2)	4(6.3)	6 (9.4)	5 (7.8)	
	자영업	8 (14.8)	5 (9.3)	12 (22.2)	4 (7.4)	9 (16.7)	8 (14.8)	8 (14.8)	
	판매서비스· 생산직	1 (5.6)	-	5 (27.8)	-	2 (11.2)	4 (22.2)	6 (33.3)	
	은퇴·무직	1 (11.1)	1 (11.1)	1 (11.1)	-	4 (44.4)	1 (11.1)	1 (11.1)	

동일한 문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p<.05 **p<.01 ***p<.0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 자산관리과정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가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누가 자산관리에 있어 지배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가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계획을 정보수집이나 실행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사결정과 권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최종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를 주도하는 것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정보수집과 실행이 더 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이더라도 이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가정 내에서 재산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관리의 정보수집과 실행단계에서 부인주도적인

역할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총괄적 권한의 표시가 아닌 도구적 권한의 표시일 뿐이라는 것을 지지하고자 한다.

(2) 자산관리과정 전 단계를 통해 살펴본 역할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자산관리역할구조는 남편이 자산관리의 역할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자산관리형태가 사라져가고 부인이 참여하는 현대적인 관리형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산관리에의 부인의 참여는 실행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며, 아직까지도 계획단계에서 재산의 처분에 대한 권한은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역할구조의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변수들의 차이는 남편주도-부부공동-부인주도의 순서로 나타나지 않고 부부공동과 부부중 1인주도 간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할구조를 설명하는 요인들의 해석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부부간의 역할분담의 정도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보다 역할의 공유와 분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관리형태에서 역할공유의 현대적인 관리형태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남편주도의 역할구조에서 부부공동의 역할구조로 바뀌기에 앞서 부인주도의 역할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4) 자산관리의 역할구조를 설명하는 요인 중에서 자산은 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및 채권과 부동산은 남편주도적인 역할구조와 관련이 있었으며, 화폐자산과 계 및 사채는 부인주도적인 역할구조와 관련이 있었다. 이는 부인의 재정권한이 경제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자산축적에서 과도기로서의 성격이 강한 화폐자산과 계 및 사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부인의 가계자산 증식 방법은 투자 또는 투기보다는 소비절제를 통한 '저축'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부인이 자산관리과정에 남편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산관리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인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직업지위, 소득이 부인이 자산관리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자산관리지식은 자산관리과정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자산관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인들이 쉽게 자산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윤경 (1983).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유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영희 (1982). 구매결정과정에서의 부부의 역할구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숙 (1981). 도시가정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부부간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2). “한국가족에서의 부부관계의 인식과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19-109.
- 이은숙 (1977).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근대화의 면, 한국사회학, 11 : 95-107.
- 전성울 (1988). 가계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 역할배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 (1981). 부부권력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취업, 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 : 37-47.
- Deacon, R. E. & Firebaugh, F. M.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second ed., Allyn and Bacon, INC.
- Kim, C., Laroche, M. & Zhou, L. (1993). An Investigation of Ethnicity and Sex-role Attitude as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Financial Task Shar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0 : 52-58.
- Qualls, W. J. (1987). Household Decision Behavior : The Impact of Husbands' and Wives'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september) : 264-279.
- Rosen, D. L. & Granbois, D. H. (1983). Determinants of Role Structure in Family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september) : 253-258.
- Safilios-Rothschild, C. (1976). A Macro- and Micro-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2) : 355-362.
- Titus, T. M., Fanslow, A. M. & Hira, T. 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 309-318.